

건축사협회·건축사공제조합·서울시건축사회·서울건축사신포 합동 시무식 “2023년, 의무가입 원만하게 마무리…새로운 정책·비전으로 새 시대 열 것”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3일 오전 10시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서울건축사신포합동조합 합동 시무식이 열렸다.

시무식은 정명철 대한건축사협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과 명예회장단, 신우식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 김재록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 성낙기 서울건축사신포합동조합 이사장과 각 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신년사에서 “2022년은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과 건축사대회 성공 개최로 우리 협회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해”였으며 “2023년은 의무가입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한 해로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준비하고 추진해 회원 권익 향상과 업역 확대를 위한 민간대가 기준 개정 등의 여러 현안을 하나씩 해결하겠다. 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유일의 법정 단체로서 건축계 대표에 걸맞은 역할을 의연하게 감당하며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등 위상에 부합하는 협회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가적·사회적 현안과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해법 제시, 사무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협회로 재편할 것임을 알리며 “희망과 자신감으로 최선을 다해 미래에 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신우식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은 “새해에도 수익 향상과 조합원 복지를 위한 자금 운용, 연금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조합 이용률 증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전산시스템 리뉴얼로 조합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록 서울시건축사회장은 “의무가입이 발효되며 새해엔 회원 증가 추세가 확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협회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모범적 협회를 만들기 위해 선두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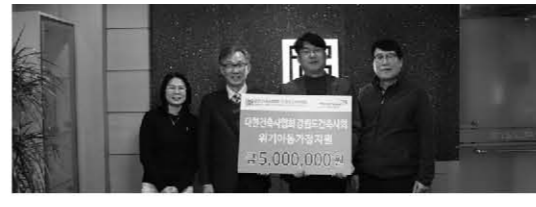
성낙기 서울건축사신포합동조합 이사장은 “올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온뱅킹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축사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 2% 신용대출을 금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년도 대한건축사협회 감사선거 1월 16일 공고 예정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후보자 등록

대한건축사협회가 1월 16일 2023년도 감사선출을 위한 선거공고를 내고, 선출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임원선거 추진일정 및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공고가 1월 16일 나간 뒤, 후보자 등록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9시부터 17시까지) 이뤄지게 된다.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등록서류(후보자등록신청서, 이력서, 선거공보 원고 등)를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협회 총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선관위는 감사선거 최종 후보자를 1월 27일 공고할 예정이다. 협회는 오는 2월 23일 제57회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하게 된다. 문의, 협회 총무팀(02-3415-6813, 6830)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사랑의 집고치기 ‘건축사랑’ 준공식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소외 이웃을 위한 집고치기 프로젝트 ‘건축사랑(건축사랑)’ 열여섯 번째 집을 완공하고 11월 16일 사상구 화목경로당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진태 부산시건축사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조병길 사상구청장, 윤숙희 사상구의회의장과 관계자, 대한노인회 김덕수 사상구지회장, 마을주민 등이 참석해 건축사랑 준공을 축하했다.

사상구청 노인복지과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열여섯번째 ‘건축사랑’ 대상지는 사상구 화목경로당이다. 낡고 어두웠던 분위기의 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해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최진태 회장은 “건축사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사랑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부산건축사회의 공익적 책무를 다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부산시교육청에 장학금 500만 원 기부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12월 8일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육성 장려를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장학금은 부산공업고등학교와 경남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진태 부산시건축사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기부에 동참했다”며 “이 기부금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대전 5개 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전광역시건축사회는 연말연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5개 구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박태식 회장은 “어려운 지역 주민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협회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울산대학교에 장학금 전달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12월 14일 울산대학교에서 지역 건축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울산시 건축사회는 매년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건축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역 대학교에 전달하고 있으며, 전달된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건축 전공 학생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김원호 회장은 “건축사들의 마음을 담은 장학금이 울산의 미래를 선도할 학생들에게 소중히 사용되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원도건축사회, 월드비전 후원금 전달

강원도건축사회는 지난 12월 29일 월드비전에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전영석 강원도건축사회장은 “후원금이 도내 위기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잘 전달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건축사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충청북도건축사회가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충북건축사회는 12월 3일 토요일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일원에서 청주시건축사회와 함께 연탄 1,000장을 전달했다. 한 가구당 250장의 연탄이 4가구에 공급된 것이다. 이날 충북건축사회는 사단법인 징검다리 연탄구입비 3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충청남도건축사회,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 기탁

충청남도건축사회는 12월 13일 충남건축사회에서 희망 2023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사랑의 열매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서 정광영 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소중한 성금을 보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사업을 위해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성우중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웃사랑 실천을 함께 해준 충남건축사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건축인재 육성 위한 장학금 전달

전라북도건축사회가 올해도 장학사업으로 미래인재 육성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건축사회는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축인재 육성을 위해 도내 고등학교 중 건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주공업고등학교와 이리공업고등학교에서 추천받은 6명의 학생에게 지난 12월 16일과 21일 학교를 방문해 50만 원씩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인재 육성 장학사업 3년차를 맞는 전북건축사회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지난 12월 16일 전라북도에 전달하는 등 매년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활동을 지속 중이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을 지속해서 실천하는 것은 물론 지역건축문화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2,000만 원 기탁

전라남도건축사회는 12월 6일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전남 인재육성장학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남도청 귀빈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한형민 전라남도건축사회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육성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기탁해준 장학금은 지역의 인재가 꿈과 목표를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건축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경상북도건축사회는 12월 27일 경상북도 도청을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재철 경북건축사회장은 “전달된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나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경북건축사회는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건축사회, 연말 이웃돕기 성금 전달

경상남도건축사회는 (사)경남지역발달장애인복지협회 진주시지부, 마산 회원동 나눔의 집,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경남건축사회 여성위원회 취약계층 아동 공부방 꾸며주기 지원 사업 등에 총 1,500만 원을 기탁했다.

오공환 경남건축사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포구지역건축사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전개

마포구지역건축사회는 11월 2일 마포구 한 주택에서 ‘건축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집 고쳐 주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서울시건축사회 봉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해당사업은 지난 한 해 동안 강남·관악·마포·도봉·종로를 포함한 5개 지역건축사회에서 진행됐다.



춘천지역건축사회, ‘연탄나눔’ 봉사활동 전개

춘천지역건축사회는 12월 3일 춘천시 사농동 일대에서 조덕규 춘천지역건축사회장과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강원도건축사회는 매년 연말연시를 맞아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영석 강원도건축사회장이 참가, 봉사활동에 나선 춘천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삼척지역건축사회, 삼척 향토장학금 기탁

삼척지역건축사회는 12월 7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삼척 향토장학금 200만 원을 삼척시에 기탁했다. 심영부 삼척지역건축사회장은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발굴, 지원하는데 꾸준히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안지역건축사회, 함안군장학재단에 장학기금 기탁

함안지역건축사회는 12월 8일 함안군장학재단에 장학기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강홍수 함안지역건축사회장은 “지역 내 인재들이 꿈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이에 조근제 함안군수는 “매년 기탁해 주신 성금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고 있다. 건축사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용인지역건축사회, ‘용인시장학재단’에 장학기금 전달

용인지역건축사회는 12월 9일 용인시장학재단에 장학기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 용인시건축사회의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장학금전달은 매년 회원들의 참여로 연속성을 갖고 있는 대외 봉사활동 중 하나이다. 최중찬 용인지역건축사회장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장학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지역건축사회, 취약계층에 사랑의 성금 1,100만 원 전달

전주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2월 연말을 맞이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30일 전주시청에 500만 원, 28일 덕진구청에 300만 원, 27일 완산구청에 3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이성열 전주지역건축사회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한파로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